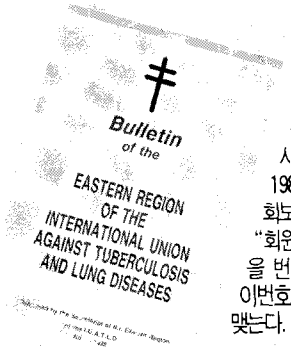
IUATLD 동부지역

회원국 활동 요약

편 집 부



이글은 IUATLD 동부지역 사무국이 1989년 펴낸 회보중에 실린 "회원국 활동상황"을 번역한 것으로 이번호로 끝을 맺는다. (편집자)

필리핀

필리핀 결핵협회 창설 75주년을 맞이하면서 추진되는 사업들이 정착되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치료에서 예방차원으로, 그리고 조직관리에서 지역사회 주도로 전향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그런결과 5개년 개발계획의 영향으로 아래와 같은 분야에 있어서 사업이 투자되고 있다.

1. 시료확대

협회의 32개 지부에서는 연간 30만-50만명에 달하는 환자의 진료와 20만명의 X-선 검사 그리고 6만건의 객담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지소에서는 연간 500-600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퀘존」연구소내 부속병원은 1988년 8월로 창설 5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연간 평균 6,738명의 환자진료를 하고 있으며 그중 80%는 무료환자이다. 이곳에서는 진단센타의 역활로 임하면서 결핵과 합병증이 있는 환자와 응급을 요하는 환자를 취급하고 있다.

2. 조사연구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의 진단기술, 보건시료전달, 보건정책분석등 2개 주요연구는 착수하고 있으며 1981년-1983년에는 국내최초로 유일한 결핵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3. 훈련과 보건교육

보건·의료요원 교육에 있어서 협회는 지역사회 보건요원들에게 결핵에 관한 집중적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싱가폴

싱가폴의 결핵은 실제로는 환자의 감소가 없다. 대체적으로 연간 1600명의 환자가 발견되었다고 보고된다. 현저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노년 남성의 중국인들에 있어서 발병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1987년의 환자중 32%가 40-59세 연

령층에서 발생하였으며, 60세 이상이 31% 그리고 나머지는 40세 이하였다. 전체인구 10만명당 61명이 결핵인 반면 60세 이상 인구에서는 10만명당 339명이 환자였다.

중안진료소에서는 연간 268,046명의 X-선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분주한 진료소로 이를 수용하기 위하여 최신 X-선장비로 개선하였으며, 협회는 이들을 위하여 인구 425,000명이 거주하고 있는 서부지역에 진료지소를 개설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대만

대만 결핵협회의 지도자들

결핵실태조사가 매 5년마다 1957년이래 대만성방노국에서 실시하였으며 1988년에 제7차 결핵실태조사가 완료된바 있다.

결핵유병율에서, X-선상으로 1.08%였으며 결핵균양성율은 0.11%였다. 그러므로 이번 결과로 볼때 대만성내의 주요 보건문제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비록 공중보건문제의 하나로 남아 있다고는 하지만 대만에서의 결핵을 전담하고 있는 대만성방노국은 최근 대만성만성병관리국으로 개칭하게 되었다.

1956년 이래 학교교직자에 대한 X-선 검진을 17번에 걸쳐 실시하여 왔는데 지난 30년간 5.7%에서 0.16%로 질병상태는 감소되었다. 이들에 대한 검사경비는 문교부와 보건보험으로 보험회사에서 부담하게 된다. 이번검사는 20만명의 교사와 5,750명의 교직원등에 실시한 바 있다.

스리랑카

협회는 보건과 교육요원에 대한 훈련계획을 강화하여 결핵에 관한 심각한 문제점을 이해하도록 전개하고 있다.

특히 강조하는 촛점은 면역확대계획과 지역사회의 지도자와 요원의 훈련 그리고 보건지소 지원에 역점을 두기로 하였다.

우체국직원에 대한 보건교육 세미나를 실시하였고, 학교 교사에게 1일간 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지역 단위조직별로 근무하고 있는 요원에게도 훈련을 실시하였다. 국기제정일을 맞이하여 결핵예방 기금모금운동을 전개하여 167,780루피를 모금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연중모금에서 144,252루피와 정부로부터 100,000루피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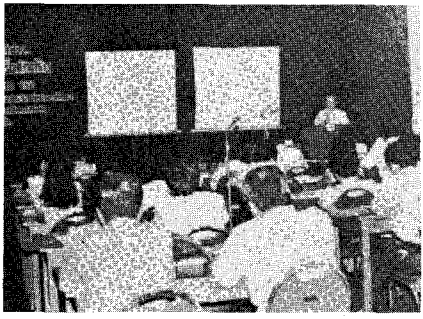
베트남

10개도의 결핵의사, 역학전문의, 계획관리요원과 보건요원들에게 58개 훈련과정을 설정하여 결핵관리교육을 실시하였다. 역학에 관한 워크샵이 WHO인사를

초대하여 진행하였으며, 일선요원 2,549명에 대한 결핵관리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UNICEF지원으로 이들 교육에 소요되는 차트 4,000매 및 전단 10,000매를 만들어 제공하였다.

WHO/UNICEF의 지원을 받아 2,500명에 달하는 26개도에서 근무하는 요원들에게 결핵관리에 관한 교육을 추진중에 있으며 20개도에서는 어머니, 유치원보모 및 지역사회 지도자를 대상으로 결핵에 관한 보건교육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태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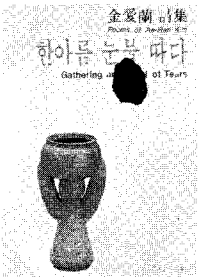


결핵의 세균학적 진단법에 대한 훈련교육

5일과정의 결핵균검사 교육과 단기치료 결핵훈련 과정등의 교육을 협회에서 실시하였다. 태국 결핵 및 흉부질환지가 계간지로 1980년이래 발간되었는데 발행부수는 1000권이다. 15만매의 결핵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1988년 8월 7일로 제1회 항결핵운동주간을 설정하여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주간행사기간 결핵관리전시회, 무료 BCG 접종과 X-선 검진, 보건교육과 항결핵씰 판매운동을 전개하였다.

새로나온 책



한아름 눈물 따다
김애란 시집

시인 金愛蘭양의 첫시집 "한아름 눈물 따다"를 〈나〉와 〈너〉 〈우리〉로 3부작으로 구성하여 한·영 2개어로 출판하였다.

필자인 김애란 시인의 이 시집에서는 우리의 크고 작은 사랑과 저며오는 삶의 숨소리들로 가득 메워져 있다.

우리의 바쁜 일상생활에 무심히 스쳐버리는 초촐한 식탁위에 차려논 사기그릇과 같이 티없는 땟갈 그 자체인 모양으로 은은히 빛나고 절제미가 넘쳐있는 이 시집은 너무나 자연스러워 우리의 숨어있는 마음의 눈을 띄게 하고 정갈스러운 느낌속에 사무치는 격앙심도 함께 깨닫게 하는 오묘함이 숨겨져 있는 작품으로 구성되어 우리의 관심을 더욱 모으고 있다.

호서문화사 / 변형국판 (169쪽) / 값 3,000원